

중동 정세 변화 속 플랜트 시장의 새로운 기회 모색

- 플랜트 정책 포럼 개최, 업계·전문가와 시장 전망 및 대응전략 논의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7월 2일(목)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플랜트 EPC* 업계 관계자, 유관기관,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플랜트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 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 설계·조달·시공을 포함한 사업 방식

이번 포럼은 최근 미국-이란 종전 MOU 체결 이후 중동 정세 변화가 플랜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시장 전망과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석자들은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공급망과 물류 뿐만 아니라 플랜트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요인과 사업기회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수주 경쟁력 제고방안을 논의하였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지역연구센터장은 최근 중동 전쟁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고 향후 중동 지역의 경제·안보 질서와 관련하여 이스라엘과 걸프국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어 김세진 법무법인 세종 통상산업정책센터장은 중동 전쟁이 EPC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공급망 차질, 물류비 증가, 보험료 상승, 계약 분쟁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계약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임병구 플릭스전략연구소 소장은 전후 중동 플랜트 EPC 시장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임 소장은 중동 지역의 재건 수요 확대와 에너지·인프라 분야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우리 기업들이 축적해 온 EPC 역량을 바탕으로 신규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중동 정세 변화는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중동 지역의 투자 확대와 산업 발전 과정에서 기업에게 새로운 사업기회가 창출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Team Korea 체계를 바탕으로 정상외교, 정책금융, 기업 애로 해소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플랜트 수주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 통상협력총괄과	책임자	과 장	정근용 (044-203-5680)
		담당자	서기관	문성용 (044-203-5684)
			주무관	이지은 (044-203-5675)



1. 행사 개요

- (일시/장소) 7.2(목) 10:30~13:00 / 여의도 글래드 호텔 블룸홀(LL층)
- (주최/주관) ^{주최}산업통상부, ^{주관}한국플랜트산업협회
- (참석) 산업부, 공기업·공공기관, 플랜트 EPC 기업 등 100여 명
 - * (정부) 통상교섭본부장, 통상협력국장 등
 - * (기관)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KOTRA,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등
 - * (민간기업) DL이앤씨, GS건설, SK에코엔지니어링, 대우건설, 삼성E&A,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2. 세부 계획

시 간	구분	내용	비 고
10:30~10:45	개회식	■ 개회사	플랜트산업협회장
		■ 축 사	통상교섭본부장
10:45~10:50	포토세션	■ 기념사진 촬영	
10:50~11:10	발표1	■ 최근 중동 정세 및 향후 전망	아산정책연구원 장지향 지역연구센터장
11:10~11:30	발표2	■ 중동 사태로 인한 플랜트 주요 법률적 쟁점 및 대응 방안	법무법인 세종 김세진 센터장
11:30~11:50	발표3	■ 전후 중동 플랜트 EPC 시장 전망	플렉스전략연구소 임병구 소장
11:50~13:00	오찬	■ 네트워킹 오찬	